

# 韓 펫보험 신계약 66% 늘었지만 개체수 대비 가입률은 1.4% 불과

작년말 기준 계약건수 10.9만건  
신 계약 건수는 5.8만건 달해

일본 펫보험 가입률은 16% 수준  
펫샵·온라인 채널 통해 접근

국내 손보사, 카카오페이 손잡고  
보험 비교 플랫폼서 판매 논의



지난 22일 부산 수영구 부산KBS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동명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한 새내기 반려견들이 견주와 함께 행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시스

지난해 반려동물(펫)보험 계약규모가 50% 넘게 급증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보다 51.7% 급증했다.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8456건으로 전년(3만5140건) 대비 66.4% 증가했다. 펫보험 원수보험료 역시 468억원으로 전년(288억원)보다 62.9% 급증했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 마리 기준으로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쳤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2020년 0.4%, 2021년 0.7%, 2020년 0.9%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 2022년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이 지난 12월 발표한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1179억엔으로 추정되고 최근 3년간 CAGR(연평균성장률)은 12.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펫보험의 가입률은 최근 10년새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며 "펫보험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가입률(50%)까지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1년 일본 펫보험 시장 규모가 약 3500억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펫보험은 주로 펫샵과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펫샵은 반려동물 구매 시 보험 가입에 주로 활용한다.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은 보험 갱신이나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펫샵은 고객에게 판매된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펫보험을 안내한다. 펫보험 시장 상위 3사가 독점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갱신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와 적절한 보장내용을 갖는 보험상품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펫샵 채널을 개척하기 어려운 보험회사들의 주력 채널로 꼽힌다.

국내 보험사들 또한 펫보험 판매 채널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펫보험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 펫보험 비교 제휴사인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킷오프 회의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서 주요 손보사들의 펫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해주기 위해 예전에 자동차 보험이 플랫폼에 비교·추천됐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펫보험은 시장이 커지는 단계이므로 블루오션이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패키지형 공모

국토부 고덕국제화 신도시서 진행  
토지공급-공공주택사업 결합 모델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고덕국제화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오는 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 건설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다. 따라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공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하

는 모델이라고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공주택 용지에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면 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공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다. 잔금 완납까지 약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착공하면 계약에서 착공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만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 흥국화재, 신임 대표이사에 송운상 내정

흥국화재는 송운상 흥국생명 경영기 획실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내정자는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한 보험 전문가다. 특히 재무·기획 전문성을 갖췄고 상품·보상 업무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송 내정자는 3월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흥국화재를 지휘한 임규준 대표는 고문으로 물러난다.

/김정산 기자

## 상상인저축銀, 업황 악화에 매각 불투명

금융위 주시처분 매각명령 6개월째  
고금리 기조에 연내 매각 어려울 듯

금융위원회가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매각명령을 내린지 6개월이 다가오지만 매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축은행권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이 부진한 탓이다. 상상인그룹은 대표이사 변경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단행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주식처분 매각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라고 명령한 것. 상상인그룹이 효력 정지 신청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달 매각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상상인그룹은 저축은행 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전해진다.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등 저축은행권의 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반기 반등설'이 있지만 상상인증권, 상상인인더

스트리 등 순이익 창구가 존재하는 만큼 취사선택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해 말 상상인저축은행은 대표이사를 바꿨다. 이재욱 전(前) 감사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던 이인섭 대표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됐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이 대표는 업계에서 경영관리 전문가로 통한다. 리스크관리와 상표 가치 제고를 함께 이룰 책임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매각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업 의지가 있다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만하다는 평가다. 단숨에 상위권 저축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택지기 때문이다. 같은 대형 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애뉴온저축은행 또한 매물로 나왔지만 지난 2019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베어링PEA에 인수된 이후 유상증자를 두 차례 단행하면서 업황이 나빠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 총자산은 4조7677억원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각 3조1993억원, 1조5684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영업권역은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 등 두 곳이다.

실제로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매각설 이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와 상상인그룹 간 본격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투자업계에서는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권의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PF와 리테일(소매금융)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 취급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설로 업황 호조 기대감이 있지만 연내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은행은 맞춤형 은퇴·연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KB골드라이프 퇴직세미나'를 시행한다.

## KB국민銀, 퇴직예정자 대상 세미나 개최

2만 여 상담노하우 기반 정보 제공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은퇴·연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KB골드라이프 퇴직세미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KB골드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에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은퇴·연금 전문 대면상담센터다. 이번 세미나는 2만 건이 넘는 KB골드라이프센터의 다양한 상담노하우를 기반으로 퇴직예정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면 세미나 공간이 없거나 분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웨세미나 형태로

강연한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세미나를 시범 운영했으며,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서는 퇴직 이후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 최소화 방안 등 퇴직예정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과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자유인출방식 연금 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구직급여 등 퇴직 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설명해 준다.

/이상미 기자 smahn1@